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4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08:1-5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50장(새 35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36번(스크린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배자의 자리에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의 나 됨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깨달게 하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예수님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종교적 습관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일깨워주시고, 예수님과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인격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견고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로마서 8:28-30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 봉 헌(offering) 375장(새 331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452장(새 505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교우소식
 - 박준영권사님·윤병옥권사님 : 한 달간 휴가
 - 이진국권사·김성애성도님 : 출타 및 한국방문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9:19-23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철저히 그 사람의 자리에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며 비로소 막혔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말씀묵상〉 로마서 8:28-30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2.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29-30절)

❖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율법 규정을 기록한 도덕적인 고상한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슴에 담긴, 인간을 향한 사랑을 토해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순간의 감정이 아닌 영원하신 그분의 가장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뤄지고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준비된 그 사랑을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고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나타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영광의 주님과 영원히 살 자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화를 만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과정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온 우주에 보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사랑의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고와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조항으로만 만났던 하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만나고 난 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실체가 되었기에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되었습니다(롬 8:31-39). 나에게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아직도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눈을 들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